

보도시점 2026. 4. 9.(목) 16:00 / 배포 2026. 4. 9.(목) 07:30  
< 4. 10.(금) 조간 >

## 공정거래위원장, 뿌리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을 앞두고,  
뿌리업계의 의견 청취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4월 9일(목) 알루스(주)의 진천 공장을 방문하고,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 행사 개요 >

- 일시 : 2026. 4. 9.(목) 15:00
- 장소 : 알루스(주) (충북 진천군 소재 공장)
- 주요 참석자 : 총 8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업계) 알루스(주) 대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정책실장,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열처리조합 임원 등

이번 행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의 시행(8.11.)에 앞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뿌리업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뿌리산업이란 제조업의 기반 공정기술(주조, 금형, 열처리 등)과, 제조업 미래 성장 발전이 되는 차세대 공정기술(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등)을 활용하는 업종을 말함

주병기 위원장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함 속에서 에너지 의존도 및 원자재의 사용 비중이 높은 뿌리업계의 경우 그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주병기 위원장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그 부담이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동제 적용 대상도 법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병기 위원장은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업계의 의견을 기탄 없이 전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연동제의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통해 연동제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사업자들의 원가분석 지원을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이 제도 안착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최유경 (044-200-4947)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

뿌리업계 간담회  
2026. 4. 9.(목) 15:00



공정거래위원회

## 인사말씀

- 일시 : 2026. 4. 9.(목) 15:00
- 장소 : 알루스(주) 진천 공장 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먼저, 산업 현장을 기꺼이 개방해주시고

소중한 회의 공간을 제공해주신

알루스 정종욱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 조율에 도움을 주신

뿌리산업진흥센터와

참석해주신 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뿌리업계는 주조, 금형, 열처리 등  
공정 특성상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철강·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사용 비중도 높은 산업으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원·하청 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악화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 초에는  
연동제 적용대상을 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뿌리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편, 연동제 확대를 앞두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확대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연동계약 체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느끼시는 애로사항과  
가지고 계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이  
공정위가 살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기탄 없이 말씀해주시면  
향후 시행령 및 하위 지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